

# 인천 119 스토리

5  
2022

## 현장 소방

쪽방촌 화재안전을 위한  
따뜻한 돌봄

## 안전 소방

'불명'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안전 수칙



인천소방본부

# 목차

## 함께 소방



## 현장 소방



## 안전 소방



## 칭찬 소방



## 행사 소방



# 인천소방 소식



## 소방본부

## 2022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운영

**교육일시** 격주 수요일 14:00 ~ 18:00 (4시간)  
※ 5.25.(수)부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소방서 방문교육 재개

**교육장소** 중부소방서 등 8개 소방서 (강화, 영종은 필요시 운영)

**교육방법** 소방서별 순회교육

### 교육일정 및 문의사항

#### 중부소방서(032-870-5147)

위치 : 중구 인종로 204(항동6가)  
날짜 : 5.25.(수) / 9.21.(수)

#### 남동소방서(032-870-5263)

위치 : 남동구 인주대로 714(구월동)  
날짜 : 6.8.(수) / 10.5.(수)

#### 부평소방서(032-723-5342)

위치 : 부평구 부평대로 324(갈산동)  
날짜 : 6.22.(수) / 10.19.(수)

#### 서부소방서(032-723-5466)

위치 : 서구 서곶로 292(심곡동)  
날짜 : 7.6.(수) / 11.2.(수)

#### 공단소방서(032-723-5546)

위치 : 남동구 남동서로 208(고잔동)  
날짜 : 7.20.(수) / 11.16.(수)

#### 계양소방서(032-650-5615)

위치 : 계양구 장제로 774(계산동)  
날짜 : 8.10.(수), 11.30.(수)

#### 미추홀소방서(032-870-3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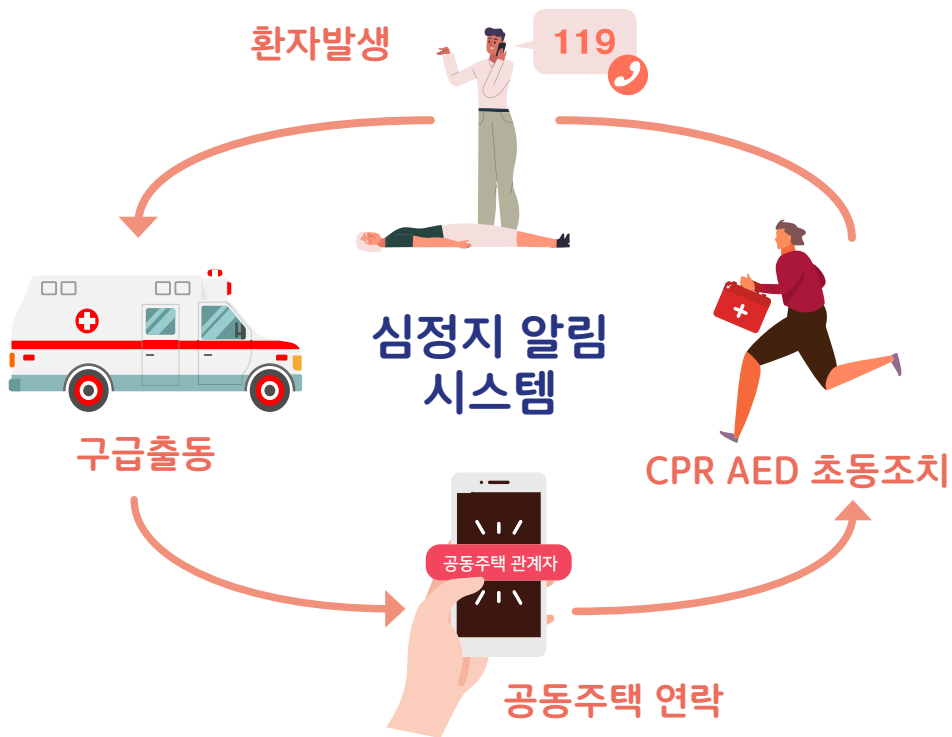
위치 : 미추홀구 인하로 190(주안동)  
날짜 : 8.24.(수) / 12.14.(수)

#### 송도소방서(032-810-6624)

위치 : 연수구 첨단대로 60번길15(송도동)  
날짜 : 9.7.(수) / 12.28.(수)

남동소방서

## 심정지 환자 소생을 향상을 위한 「심정지 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기간** 2022. 5월 중

**추진방안**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공동주택 관계자 초동조치체계 구축

**주요내용** 심정지 환자 발생(119신고) → 구급출동 시 공동주택 관계자 연락 → CPR·AED 사용 안내 → 구급차 도착 후 응급처치 및 병원이송

**문의사항** 남동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870-5278

서부소방서

## CAFS 소방차량(장비) 시연회



**시연일시** 2022. 5. 25.(수) 14:00

**장 소** SK인천석유화학(주) 훈련장

**주요내용**

- CAFS 펌프차와 기존 소방차량 간 방수성능 비교
- 무인방수총 및 스마트 관창 방수 시연

\*CAFS : Compressed Air Foam System, 압축공기포시스템

**문의사항**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032-723-5442

## 부평소방서 '비상구 지킴이' 시범운영으로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기간** 2022. 4 ~ 5월 중

**대 상** 삼성메디플러스 등 화재취약대상 5개소

**주요내용** 비상구 4m범위 안에 움직임이 식별되면 폐쇄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경고멘트 송출로 불법행위 방지

**문의사항** 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032-723-5334

## 공단소방서

## 의용소방대 우수활동 시책사업 추진



**추진기간** 2022. 5 ~ 6월 중

**대 상** 공단의용소방대

**주요내용** - 응급처치 영상 수어 제작  
- 지하철역사 소방시설 위치도 제작 및 부착

**문의사항** 공단소방서 119재난대응과 032-723-5559

## 미추홀소방서

## 화재예방확인 119초(sec) 인증샷 캠페인

\*119초(sec) : 안전(safe) 체험(experience) 확인(check)을  
119초(2분)간 참여

화재예방을 위해 119초만 투자하세요 ♥♥

## 화재예방확인 119sec

[Safe, Experience, Check]

## 인증샷 이벤트

이벤트기간 : 5.5[목] ~ 5.18[수]

■ 가정, 직장, 생활속에서 화재예방확인 관련사진을  
#화재예방확인119 #인천소방 태그와 함께  
SNS 업로드 (인스타그램)

- “좋아요” 다수 게시물 3명  
에어팟2세대
- 선착순 50명  
소화기, 감지기 세트  
(중복당첨가능)
- 추첨 150명  
(편의점통합 모바일 상품권 50/  
스타벅스 기프트콘 100)

♥ 응모분야

- 가정 내에서 안전점검 활동
  - 가스시설(중간밸브 등) 안전점검 인증샷, 아파트 층랑경계벽(칸막이), 대파전용공간, 소화기 확인 인증샷
- 소방안전교육 체험 활동
  -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체험 인증샷 \*가족안전 119체험행사 인증샷
- 기타 안전관련 활동(화물무대, 산업단지, 여중여고시설, 원동시장)

\*소방시설 점검 인증샷, 우리동네소화기함, 소방차전용구획선, 비상구 및 완강기, 계단적치물 확인 인증샷

**당첨자 발표 5월 20일(금)**

119\_incheon 에서 확인

소화기, 감지기 세트는 중복당첨 가능하며  
미추홀소방서(인근119안전센터)에서 직접수령

INCHON MICUHOUL FIRE STATION  
**인천미추홀소방서**  
문의☎ 032-870-3226

## 추진기간

2022. 5. 5.(목) ~ 5. 18.(수)

## 대상

학생, 직장인, 일반시민

## 참여방법

개인 인스타그램에 안전 체험활동 등에  
대한 사진과 내용을 해시태그를 달아  
게시

## 참여특전

게시 선착순 및 “좋아요”를 많이 받은  
게시물 중 250명 선정 후 경품 지급

## 문의사항

미추홀소방서 예방안전과

032-870-3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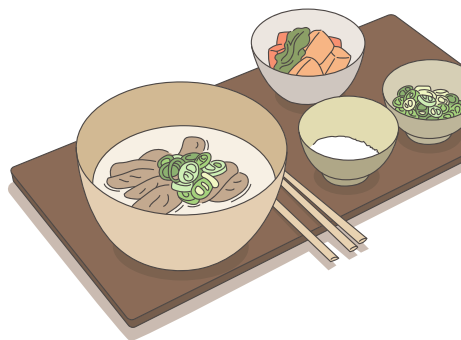


# 우리는 영종 급식벤저스!

글 영종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장 신상진

몇 년 전, 파주에 있는 모 고등학교가 학교급식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적이 있었다. 맛과 고품질의 급식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영양사님이 언론에 소개됐었는데, 그 기사를 보며 우리 소방서 급식소도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다.

인천 소방관서 중 급식 맛집으로 소문난 영종소방서 급식소를 지키는 영양사님과 조리사님, 통칭 ‘영종 급식벤저스’를 소개한다.



## 조리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시는지요?

영양사 약 20년, 조리사 30년, 조리 보조 20년. 우리 셋이 도합 70년 정도 되네요.

## 영종소방서 급식소만의 시그니처 메뉴가 있을까요?

소뼈로 우려낸 진국 설렁탕, 속이 꽉 찬 고추튀김, 갈비구이, 육회비빔밥, 여름철 별미 콩국수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설렁탕의 경우는 약 3일에 걸쳐 우려내, 정성이 가득합니다.

## 급식소 식재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신선한 재료가 입고될 수 있도록 검수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일 입고, 당일 소비를 원칙으로 가급적 재고가 남지 않도록 하여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측부터 이명예 조리사, 김경희 영양사, 박미선 조리사

### 2021년 하반기, 소방관서 급식소 위생 안전 점검 우수급식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건강한 식사 제공을 위해서는 급식소의 청결과 위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시에 찾아봐서 누가 보더라도 ‘평소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관심과 신경을 기울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지요?

소방관서 특성상 365일 급식소가 운영되기 때문에 휴일에도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위해선 휴일에도 소방관이 필요하기에 저희 또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직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식사를 하는 중에 출동을 나가거나, 배식 중에 출동하는 직원들을 보면 아주 안타깝습니다. 항상 따뜻한 밥을 해놓고 기다릴 테니 부디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만 돌아오세요.

# 최고의 비번활동

글 예방안전과 소방위 오수미



2022년 4월 28일, 산악구조훈련으로 무의도 호룡곡산으로 이동하던 영종소방서 생활안전대 대원들과 구조대원들이 화재를 발견하고 인근에 비치되어 있던 거리형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여 인근 건물과 근처 산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방관으로서 당연한 일이다 할 수 있겠지만, 소방관만의 촉을 발동시켜 화재를 진압하고 연소 확대를 막은 주인공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그날의 주인공 중 한 명인 공항19안전센터에 근무하는 신태섭 반장을 만나보았다.



#### 4월 28일, 그날의 상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산악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승합차를 타고 훈련 장소인 무의도 광명항으로 이동하던 중 해변 농어촌 민박집 뒤편으로 검은 연기가 보였습니다. 소방관의 직감으로 내려서 확인해보니, 민박 건물 소유로 보이는 컨테이너에서 용접 작업 중 옆 적재물에 불이 붙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료에게 종합상황실로 신고를 요청하고, 인근을 살펴보니 소방서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설치한 소화기함이 보였고, 바로 가져다가 불을 끌 수 있었습니다.

#### 신문보도를 보고 어떠셨나요?

소방관이라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요. 그래서 다들 쑥스럽기도 하지만 초기에 발견하고 진압해서 다행이고, 인근 산으로 번지지 않아 더욱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관으로서 가슴에 뿌듯함이 하나 더 아로새겨진 것 같습니다.

#### 산악 훈련에 잠수복 슈트를 입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산악 및 암벽 등에서 조난이나 추락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무의도 호룡곡산 세렝게티 지역에서 추락사고 발생을 가정한 훈련으로, 구조 대상자를 안전하게 구조한 뒤 바다를 통해 이송하는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훈련 복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다짐 한 말씀 해주세요.

항상 기본에 충실한 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훈련에 더욱 매진하고,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현장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쪽방촌 화재안전을 위한 따뜻한 돌봄

글 중부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교 유지나



중구에는 유난히 쪽방촌이 많습니다. 북성동1가 일대와 ‘괭이부리말’로 알려진 만석동 9번지 일대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쪽방촌은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 온열 기구나 선풍기를 가동하는 등 전력 수요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화재가 나도 즉각적인 대피나 초기 진화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들이 나서 소화기도 가져다드리고, 화재 감지기도 달아드리고, 노후화된 기초 소방시설을 확인 후 즉각 갈아드렸습니다.

또 쪽방촌 일대에 설치된 '우리동네 소화기 함'도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기도 합니다.



쪽방촌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위험한 건 아프실 때인데요. 당장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가 늦어지거나 119에 전화해도 정확한 설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9안심콜'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등 홍보도 잊지 않았습니다.





119안심콜은 서비스에 등록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서 출동 시 미리 준비하여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서비스로 등록자의 보호자에게도 119신고접수가 되었다는 문자서비스를 통해, 보다 빠르게 사고 사실을 알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직접 수혜자에게 받기도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등록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나 일반 유선전화 번호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자의 전화기로 119로 신고하여야 구급대원들이 사전 등록 정보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직 예전 모습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보면 어렸을 적 할머니가 떠올라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쪽방촌 어르신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화창한 아침, 모세의 기적

글 송도소방서 국제119안전센터 소방교 주용권



화창한 금요일 아침, 동료 대원의 휴가로 당번 근무를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아침 출근 후 간단한 인수인계를 끝내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있을 무렵 익숙한 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띠링, 띠링. 구급출동! 구급출동! 38주차 임산부 구급출동입니다.’

38주차 임산부라니! 벨소리를 듣고 긴장하며 지령서를 확인하니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동 지령서에는 38주차 임산부이며 진통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환자와 소방대원을 보호하는 감염방지 보호복을 착용 후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출동하며 나는 여러 가지의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는 양수가 터져있는 상황으로, 아이의 머리가 보여 현장에서 응급 분만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응급분만의 경험이라고는 학교에서의 훈련과 동료 소방대원의 경험담 이야기뿐이었기 때문에 긴장이 되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훈련했던 경험을 머릿속으로 그리며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환자를 보았을 때, 다행히 양수는 터지지 않았으나 진통이 5~10분 간격으로 오고 있으며 출산예정일은 약 1주 남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은 언제 분만할지 모르니 가까운 대학병원으로 가자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했지만, 노산 및 개인 사정으로 꼭 서울 소재인 한 병원에서 출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듭되는 설득에도 불구하고 환자와 보호자는 우리에게 헛걸음시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며, 개인 차량으로 서울까지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침 출근 시간 교통 정체로 OO 서울병원까지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시간까지 소요될 수 있는 거리였으며, 만약 개인차량으로 가다가 차 안에서 응급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은 상의 후, 구급차로 이송하기로 했습니다.

이송 중 다행히 양수는 터지지 않았지만, 진통의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구급차에서 응급분만을 할 수는 있지만, 좁은 차 안에서 안전하게 하기란 어려우며, 병원보다 감염의 위험이 많기에 환자와 아기에게 여러모로 좋지 않아 사이렌을 울리며 서둘러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출근 시간으로 서울로 가는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기 때문에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그때, TV에서나 보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반으로 갈라지듯, 차들이 옆으로 비켜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맙다고 인사할 틈도 없이 빠르게 병원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옆으로 길을 양보해 준 차들 덕분에 우리는 빠르게 병원으로 갈 수 있었고, 도착 후 바로 산부인과로 인계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보호자가 국제119안전센터로 찾아 와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덕분에 순산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나는 당시 있었던 긴박했던 순간과 옆으로 비켜주던 차들을 생각하며, 소방대원으로서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나라에 대해 자랑스러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불멍’용 에탄올 화로 화재주의

\*불멍 : 불을 보며 멍때리기



### · 에탄올 화재 발생 현황 (2020 ~ 2022. 3월)



화재 13건



부상 15명



재산피해 5천만원 이상

▷ 주요사례 : 2022년 1월 대전 월평동 주택 내 ‘불멍’ 에탄올 화로에 연료 주입하다가 화재발생하여 7명 경상, 20명 구조

### · 장식용 에탄올 화로 사용 시 안전수칙

1. 밝은 곳에선 불꽃이 잘 보이지 않아 오인, 꼭 불꽃이 없는 것을 확인 후 연료 주입할 것
2. 주변 커튼, 옷 등 가연성제품을 멀리하고 소화기 비치
3. 사용 전 사용설명서 확인
4.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충격을 가하지 않기
5. 밀폐된 공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고 주기적으로 환기

## 무엇보다 큰 보람

— □ ×

### 칭찬합시다

구급 출동 대원님께 감사와 응원을 보냅니다.

작성자 : 박OO

국민의 생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구급 출동 대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저는 인천 서구 원당동에 살고 있는 소시민입니다.

금일(4.16) 이른 아침, 부평구 부개동 그린힐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계신 장모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신없이 집사람과 함께 벌일 없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드리며 부개동 장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40분은 소요되는 거리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난생처음 119도움을 요청하고자 전화를 드렸습니다.

접수부터 편안하게 이동상황까지 설명해주셨고, 저희가 먼저 도착하여 장모님 상태를 확인하니, 입이 돌아가 있고, 언어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을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때마침 119 구급대원님들도 도착. 구급대원 3분이 연로하신 장모님께 ‘어머님, 어디가 편찮으세요’를 시작으로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너무도 편안하고 친절하게 돌봐주셨습니다.

\_ □ ×

덕분에 무사히 부평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 그 자체였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시민으로서 감명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당황한 나머지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있음  
 을 직접 체험하였습니다. 말로만 듣던 119 구급대원분들 덕분에 저희 장모님은  
 골든 타임을 지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늘 음지에서 소임을 다하는 여러  
 분 덕분에 우리 소시민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늘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각 분야 모든 공무원이 수고가 많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구급대원들이 그  
 중 가장 으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며 두서없는 몇 자 띄웁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특히 당시 출동한 김효상, 오세영, 홍정우 대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 출동 당시 상황이 어땠나요?

85세 여성 ‘어머니 쓰러짐’이라는 신고 내용으로 출동 중 출근길 교통체증으로 도착 시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자와의 통화를 통해 상황을 안심시켜 드리며, 빠르고 안전하게 출동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현장 도착 후 환자 상태를 파악하였고, 불안해하는 보호자를 최대한 안심시키며 침착하게 현장 처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뇌혈관 질환의 치료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즉각적인 진료를 돕고자,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 골든타임을 최소화하여 할머니의 긍정적인 예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칭찬 글이 올라온 것은 알고 계셨나요? 읽은 후 느낌은 어떠셨나요?

게시글은 확인했습니다. 뜻밖의 칭찬에 너무 감사드리며, 현장 활동에서 부족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소방활동에 대한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성숙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환자의 입장을 공감하고, 소통하는 구급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제20회 인천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일자** 2022. 6. 7. ~ 6. 9. 14:00~17:30 / 3일간

**장소** 남동 소래아트홀 대공연장  
(인천 남동구 논현동)

**참가부문** 유치부, 초등부

**문의사항** 인천소방본부 예방안전과  
032-870-3335



## 「소방청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기간** 2022. 6. 2. ~ 7. 15.

**참가자격** 국민 누구나

**참가방법** 전자우편(changmining@korea.kr) 또는 우편 제출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2동 330호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044.205.7314

**공모주제** 기업활력 제고 및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공모분야** 신산업·기업부담·국민불편·지역현장 4개 분야

**문의사항** 소방청 감사담당관실 044-205-7314





**인천소방본부**

발행처 인천소방본부(예방안전과) 발행일 2022년 5월 26일

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90 전화 032-870-3075

홈페이지 <https://www.incheon.go.kr/119>

기획편집 정상기, 양경철, 김선태, 유지연, 박형서

디자인 · 기획 · 편집 소나기크리에이티브 주식회사 <https://www.s-creative.co.kr>